

선조의 뛰어난 사상 속에 담긴 구슬 같은 지혜

정해림 엮음 《성호사설정선(精選)》(상·중·하)

가치관이 흔들릴수록 고전을 찾게 된다. 20세기의 끝자락을 내려놓으면서 다시금 우리 선조의 뛰어난 사상 속에 담긴 구슬 같은 지혜를 만날 수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조선 후기 실학의 중조인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의 《성호사설》을 오늘의 눈으로 가려모은 《성호사설정선(精選)》이 나와 실학사상의 진수를 새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성호사설의 진수만 모아

원래 《성호사설》은 5개 부문 3007항목으로 서술된 것인데 순암 안정복이 5부문 20문 1383항목으로 반 이상을 덜어내 엮은 《성호사설 유선》이 있었다. 이 책은 출판계의 대표적인 편집자로 그동안 홍기문·김태준·정약용 등 우리 고전의 정본화 작업의 맥을 잇고 있는 정해림(현대실학사 대표)씨가 다시 사설의 6분의 1과 《성호사설 유선》의 3분의 1을 골라 538항목(3책12부)으로 편역해 현대 독자와 만나게 됐다.

성호는 벼슬을 단념하고 60여년을 시골에 살며 학문연구에만 마음을 기울였다. 그의 실학 학풍은 순암 안정복과 다산 정약용으로 이어졌다. 독서와 수양, 실천을 쌓으며 20년 동안 경전을 연구하고 논설을 쓰면서 서(序)·기(記)·논(論)·설(說)의 호한방대 한글을 남겼다. 이 책은 그 글 가운데 역사인물지, 이른바 문(文)에 해당하는 글과 역사평론 교훈을 담은 사(史)의 성격을 지닌 그리고 역사산책과 교양을 담은 철(哲)에 해당하는 글의 3책으로 나뉜다.

상권에는 단군과 기자에서부터 수로왕비 허후, 고려의 태조와 인종, 이색과 박연, 임꺽정과 장길산·퇴계 이황·이순신·유성룡 등 한국의 역사인물과 요순시절 관중과 포숙, 공손홍·광무제·왕양명, 일본의 풍신수길 등 중국·일본 50인의 역사인물과 문인들의 뛰어난 시가와 문장 58편을 담았다. 이 가운데 퇴계 이황에 대한 평가는 4편이나 실려 그 비중을 짐작케 하는데 “천리 밖을 염려하지 않으면 환란이 자리 앞에 닥치게 된다. 머리 앞에 닥쳐야 누우치는 자는 가장 못난 사람이다”는 말은 오늘의 경제상황에도 울림이 크다.

중권은 사료의 성공과 실패, <역사는 기술

조선후기 실학의 중조인

성호 이익이 평생 시골에 묻혀

살며 경전을 연구하고 논설을

쓰면서 남긴 글모음 《성호사설》을

오늘의 시각에서 가려 모아

편역한 《성호사설정선》이 나왔다.

역사인물에 대한 평가와 교양,

풍속사적 탐구를 보여주는 글들은

오늘의 현실세계에도 여전히

유리한 시각을 제공한다.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역사의 숨겨진 사실> 등 역사평론과 함께 ‘균전제’ ‘노비환천법’ ‘사적관’ ‘사창(社倉)제도’ ‘승려도첩제’ ‘토지제도’ 등의 역사적 용어에 대한 성호의 고증과 견해를 밝힌 글들을 모았다. ‘승려도첩제’에 대해서는 사사로서 사찰을 세워 지덕을 손상하는 폐해를 당시 없어진 도첩제로 막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거나, ‘서원’에 대해선 당파를 모으고 다른 당을 공격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학문 강론을 도외시하는 폐단을 지적하기도 한다.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 글귀들

하권에는 시·서경, 논어·맹자의 교훈과 함께 선비의 역할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가야금·나막신·두부 등 사물의 어원과 풍속을 탐구한 글을 두루 실어 풍속문화사의 단면을 보여준다.

“탐내는 바가 있어 글을 읽는 자는 아무리 읽어도 깨우침이 없다”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백성 없는 임금은 없다” 등의 가치관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반면 “고급서적을 펼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의 글이 반드시 중국사람의 글만 못하다”거나 “소인의 생각과 행동은 여자와 같다”는 글귀에서는 당시의 가치관에 경도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밖에 《동국지도》나 《삼국지연의》, 《춘추경전》 등의 서책에 대한 평문도 성호의 독서편력과 학문과 사색의 일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글들이다.

《성호사설정선》에는 각 권에 실린 인명과



서명에 대한 꼼꼼한 해설을 부록으로 붙여 본문이해를 돕는데, 1천여명에 이르는 인물들의 호·시호·별호·군호, 생몰연도 등을 하나하나 찾아내 실었다. 색인 또한 책의 완결성을 높인다. 현대적인 문장으로 옮겨, 옛 글의 맛은 살렸으며 읽기에 전혀 막힘이 없

다. 학문과 인품이 높았던 성호의 눈을 빌려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고, 당대의 시각을 통해 오늘의 현실세계를 가늠하는 고전의 잣대로서 이 책의 역할은 충분하다.

— 김지원 기자

현대실학사/A5신/각400면 내외/각 13,000원

16세기 우리 옛말 연구의 중요한 자료

조항범 지음 《주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1977년 청주의 순천 김씨 묘에서 출토돼 그 이듬해 학계에 보고된 자료인 ‘순천김씨묘출토간찰’을 판독한 다음, 이에 주석을 달고 현대어로 옮긴 주해서다. 출토 당시, 미라화된 무덤의 주인공과 함께 출토됐다는 점, 그 연대가 임진왜란 이전까지 올라간다는 점, 한번에 발견된 국문 간찰로는 최대 분량이라는 점 등이 주목됐다.

그럼에도 20여년이 지난 지금 이 간찰이 주해된 까닭은 필사본 자료를 경시하는 학계의 풍토 때문이었다. 그러나 언문편지가 가진 국어사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출토 당시 고무된 분위기와는 달리 그간 전문학자의 구체적인 연구가 너무 드물었는데 이번엔 충북대 국문학과 조항범 교수가 현대역했다. 이 간찰에는 순천 김씨의 친정부모님과 남편·남동생 등이 순천 김씨와 주변 인물들에게 보낸 편지가 포함됐다. 언문편지의

특성상, 주로 구어체로 쓰여진 데다 그 연대는 크게 보아 ‘1550년대~임진왜란 전’으로 추정

돼 16세기 우리 옛말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조교수는 1990년 초부터 작업을 시작해 낱종이 192장에 달하는 간찰의 판독문·주석·현대역을 붙였다. 그의 부친인 조건상 교수가 학계에 처음 소개한 자료라 2대에 걸친 작업이 된다.

태학사/A5신/968면/35,000원

